

투데이 칼럼

유머로 상대방을 사로잡자

“인 도는 지금 몇 시인가?”
년센스 질문을 하면 보통
사람들은 시차문제를 생각
하며 빨리 대답을 하지 못한다. 그
러나 재미있는 년센스로 생각하면
“네시요~”라고 답을 하면 재미
있다. “인도네시아니까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서 세계를 낚는 동물은 무엇일까
요?” 사람들의 혀를 찌르고, 고정관
념을 깨는 순발력을 보는 질문으로
“하이(high)에나”라는 의미를 알면
웃을 것이다.

우리나라 리더들은 대부분 얼굴
이 굳어있고, 어깨에 힘이 너무 들
어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이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는 가정은 물론 기업문화부터 달라
져야 한다. 아무리 부드럽고 웃음
넘치는 기업문화를 외쳐봐야 소용
이 없다.

윗사람이나 경영자의 얼굴부터
달라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부터 변신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수시로 유머나 재미있는 이야기
들을 모아 구성원들에게 활용하는
유머리스트가 되어야 한다.

요즘 기업이나 가정에서 Fun의
경험이 인기인데 성공한 경영철학
은 바로 재미있고, 재미가 있어야
성과도 좋고, 직장구성원들의 건강

에도 좋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
이다.

집에서 잠을 자다가 벌떡 일어나
회사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재미있는 프로그램과 시설이 있어
야 한다. 재미는 놀고 먹는 게 아니
고 감성의 리더십이 있는 것을 말
한다.

그리고, 소통이 있는 생활을 말할
수 있는데 “콘크리트 전봇대와 마
주쳐도 30분 만에 친해질 수 있어
야 한다”는 신념으로 가정과 기업
을 운영한다면 가정과 기업의 행복
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백화점이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하고 년센스
질문을 던지면 어떤 대답이 재미있
어 웃을까요?

많은 대답 중에서 “라본으로 묶어
놔서”라고 대답을 하면 재미있고
유머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것이

다.

이와 같이 유머 있는 사람이 인기
있고 비즈니스에서도 성과가 좋다는
연구결과가 무수히 많다.

유머는 웃음만을 주는 것이 아니
라 그 특유의 사람을 하나로 묶는
힘이 있기에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성공을 꿈꾼다면, 오늘부터 바로,
유머를 구사해 보도록 노력해 보
자.

유머는 난처한 상황을 반전 시켜
주는 무기 역할을 하는데 영국의
처칠은 의회에서 연설을 하는데 야
당의원들이 처칠의 바지 지퍼가 열
려있음을 지적하자 처칠은 연설을
멈추고 “족은 새는 새장을 열어놓
아도 날아가지 않소”라고 대답을
하여 연설장은 웃음바다가 되었고
연설의 효과는 대단했다.

지식이나 논리로 풀어나갈 수 없
는 문제도 상황에 적합한 유머 한

마디가 웃음을 이끌어 내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아닌
가?

유머는 전염이 된다. 아빠가 웃으
면 아이들이 따라 웃는 것은 당연
하고 단지 재미보다 그 만큼 서로
의 마음을 열어주는 전염요소가 있
기 때문이다.

여기서 유머감각을 깨우는 방법
에는 세가지가 있는데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시간(timing)이 맞아야 한다.
둘째, 장소(place)가 적합해야 하
며,

셋째, 상황(occasion)이 맞아야 좋
다.

이것은 T.P.O. 기법인데 모든 스
피치에서도 기본적인 원칙이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유머감각이
뛰어난 사람은 극히 드물고 대부분
훌륭한 유머리스트는 학습에 의해
서 성공한 사람들이다.

지금부터 하루에 한가지씩 유머
를 외워서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유머인간이 되자.

이렇게 습관화 해 두면 어느 상황
에서도 자연스럽게 유머를 구사할
수 있게 되어 현대를 살아가는데
큰 자신이 될 것이다.

유머감각을 키워 가정, 기업, 나라
전체가 서로 마음을 열고 밝은 웃
음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자.



김 양 옥

전주교대 평생교육원 전담교수

사설

3일 만에 속내 드러낸 일본

강제동원 해법을 둘러싸고 초
장부터 파란이 일고 있다. 일
본 외무상이 “강제동원 없었
다.

이미 다 끝난 문제”라고 말하
는 등 기대와는 전혀 다른 정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발표 3일 만에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가 있고 불과 사흘 만인
3월 9일 한일 정상회담 발표가
있었다.

그런데 그에 앞서 일본 외무
상이 강제동원 자체를 또 부정
하고 이미 다 끝난 일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확인됐다. 기시
다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 개최
소식을 알리며 다시 한 번 우
리 정부의 강제동원 문제 해법
을 언급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관련 조치에 대해 평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에
앞서 열린 일본 중의원 안전보
장위원회에서는 강제동원이란
표현이 적절한지 의원이 분자
하야시 외무상은 사실상 강제

동원은 없었다고 말했다.
하야시 일본 외무상은 “개별
도항, 모집, 알선, 징용 등 어
떤 것도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
상의 강제노동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것들을 강제노동이라고 표현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
한다.”고 했다.

한국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가
있고 불과 사흘 만에 강제동
원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
정한 것이다. 우리 정부의 해
법인 제3자 변제에 대해서도
일본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일본 외무상은 “한국 측 재단
이 판결권을 신속하게 실행하
는 것으로 일본의 일관된 입장
을 훼손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했다.

또 한국 측이 일본 피고 기업
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도 고
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
령과 관계 강화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말해 일말의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이재명 대표 측근의 죽음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이 숨진 채 발견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고인이 검찰
의 조차·압박 수사로 매우 힘들
어했다”며 검찰을 강도 높게 비
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 주변
에서 왜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느냐”며
“공포 영화의 일상화”라고
돌아세웠다. 이재명 대표는 “믿을
수 없는 부고를 접했다”는 말로
숨진 전 모 씨 관련 입장을 밝혔
다.

고인은 자신이 만난 공직자 중
가장 청렴하고 유능하고 성실했
다며 반복적인 검찰 수사, 특히
조차·압박 수사에 매우 힘들어
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게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
입니까. 수사당하는 게 제 잘못입
니까. 그야말로 검찰의 광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주변 여성은
수사 기관에 8차례나 불려 나가
같은 질문을 반복적으로 받았고,

재주에 사는 친구 역시 정치 후
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강제 소
환’ 이야기까지 들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어울한 죽음을 정치
적 도구로 활용하지 말라”, “검찰
의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말로 약 8분간의 작
심 발언을 마쳤다.

오후 일정을 전면 취소한 이 대
표는 곧바로 전 씨 빈소를 찾았
다.

유족 측이 조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주변 인물
이 벌써 5명이나 세상을 떠났다
며 ‘공포 영화의 일상화’라고 비
판했다.

전 씨 역시 이 대표 범죄 혐의
의 꼬리를 자르기 위한 희생양
이냐며 이 대표가 죽음의 행진
을 막는 결자해지에 나서라고 거
취를 압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검찰의 강압
수사 주장에 대해 고인이 된 분
들 속에서 고인이나 가혹 행위
등을 주장하고 있지 않다면 의혹
을 일축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영화 ‘에에올’ 제95회 오스카 작품상 등 7관왕



영화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 (에에올)의 제작진과 출연진이 12일(현지시
간)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95회 아카데미(오스카)
시상식 프레스룸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에에올은 작품상을 비롯해 감독상, 남녀주
연상, 남녀조연상, 편집상 등 7관왕에 올랐다.

홍수로 물에 잠긴 파하로 벨리 주택가



12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파하로 벨리 주택가 도로가 물에 잠겨 있다. 캘리포
니아주 북부에 대기천(atmospheric river) 현상에 따른 집중호우로 파하로강이 범람해
주택과 상가가 침수되고 주민 8500여 명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

